

韓國特産物 植物에 對하여

A Discussion on Korean endemi genera Plants

李 恩 喆

1. 緒 論

特産植物이란 그 나라 植物相의 特異性을 說明할 수 있는 좋은 資料이다. 이들은 分布 地理學的 見地에서 本來 限定된 地域內에 適應되어 있는 進化的 極相이라 하겠다. 그러나 環境抵抗因子에 對하여서는 弱者인 故로 언제나 人類의 保護를 要한다. 그 좋은 例로서는 미션나무를 들 수 있다. 이것이 우리나라 固有種이라함은 잘알려진 事實이다 이 植物은 韓國中部 石灰岩地帶의 轉石斜面에 드물게 난다. 그 第1産地인 忠北 鎮川郡 草坪面 龍亭里의 山麓은 全部가 밭으로 變하였고 天然記念物(第19號)로 指定되어 있는 천사울 속에 몇 그루 남아 있을 뿐이며 忠北槐山郡長延面松德里山麓의 第2自生地는 天然記念物(第147號)로 指定된 뒤 그 隣近學生들의 追風地로 變하여 날로 減少一路에 있다. (21)

우리나라의 特産植物은 1952年 T.Nakai博士의 報告에 依하면 11萬 642種 402變種 72品 種으로 總합 1.118種類가 있다. (21) 그러나 特産植物의 種類란 研究調査에 따라 漸漸 그 數가 줄어지는 것이 普通이다. 그러므로 過去에는 우리나라 固有種으로 發表되었던 것이 오늘에는 外國分布가 밝혀짐으로서 이웃나라와의 共通種으로 되어진 例가 大端히 많다. 그 좋은 例로서는 버들科的 새양버들 (*Chosenia bracteosa*)을 들 수 있다. (9) 이것은 T.Nakai博士에 依하여 1920年에 버들屬 (*Salix*)에 比하여 花柱가 2-3分하며 꽃에 腺이 없다는 點을 들어 特産屬, 特産種으로 發表되었던 것인데 그뒤에 日本, 사한린 (樺太), 우수리, 滿洲, 캄차카, 바이칸 地點에 널리 알려짐으로서 東亞地方의 共通種으로 되었다. 그 外에도 植物學 名에 *Koreana*, *koreaua*, *coreea*, *corea* 또는 *quelpaertensis*, ※ *tagesimana* 같은 것이 불

※ 1642年 和蘭船『모.파트.듀.켄라』에 依하여 濟州島가 西歐에 소개되었고 *Ouelpar* t의 *quel*은 荷蘭語의 三帆船이란 뜻이며 1953年 Hamel 一行의 로雜 標流語가 世界的으로 有名해진 뒤부터 濟州島가 *querpart*로 널리 소개되었다.

어 當初에는 特産種으로 發表되었던 것이 그 뒤에 外國共通種으로 된 것이 많이 있다. 그러므로 *Korea*가 붙었다고 반드시 物産種은 아닌 것이다.

2. 特産原植物의 考察

前設 T.Nakai博士가 指摘한 11屬의 內容과 오늘의 見解들을 綜合하여 보고자 한다.

① 미션나무屬 (*Abeliophyllum*)

이 屬은 목서科 (*Oleaceae*)에 屬하는 小灌木性인 雌雄異株의 植物로 미션나무 (*Adistichum*) 一種이 있다. 이 植物은 개나리보다 일찌기 白色의 꽃이 葉前開하며 그 香氣가 大端히 좋다. 미션나무란 이름은 果實의 모양이 "미션"과 같이 생겼다는데서 얻어진 것이며 *Abeliophyllum*이란 原名은 뽕강나무 (*Abelia*)와 類似한 잎을 가지고 있다는 데서 붙여진 것이다 이 植物은 取木이 잘 됨으로 增殖시키기 容易하여 漸次 園藝化되어지고 있다.

미션나무는 1917년 鄭台鉉博士와 T.Nakai博士가 忠北 鎮川郡 草坪面 龍亭里의 측백나무

原産地를 調査하며 찾을 때에 山麓에서 偶然히 發見되어 1919年 新種으로 發表되었다(7)
屬設定의 理由는 花冠의 排列 狀態가 旋面狀인 것은 *Jasmineae*亞科에 있는 *Nyctanthes*屬과
같으나 이것은 果實의 形態가 2叉狀이며 胚珠가 直立하나 미선나무는 超科로 尺叉치 않
고 胚珠가 下垂하는 點으로는 *Fraxineae*亞科의 *Fontanesia*屬과 같다. *Fontanesia*은屬 喬木으로
花冠은 4個의 離辨으로 되며 錄合狀으로 排列하고 藥은 側裂하며 果實의 莢은 좁은데 미
선나무는 灌木으로 花冠은 合辨이며 4個의 裂片이 있고 族同狀으로 排列하며 藥은 外裂
하고 果實의 莢은 넓다는 點을 들고있다. (10)

그 뒤에 Mori博士에 依하여 天然記念物로 指定되었으나 當時의 發見地가 亭子附近이
라는 點에서 原産地에 對한 여러가지 勿議가 있었으나 1956年 忠北 槐山郡 長延面 松德
里에서 黃柄玉氏가 第2自生地를 發見함으로써 그 宿題가 풀렸던 것이다. (11) 이것은 筆者

※ 氏は 當時 隣近 長豊國民學校 教師로 教科書에 나오는 그린완 보고 領川에 나는 것이
이곳에는 없겠느냐는 生覺에서 附近山을 調査한 結果 第2自生地를 發見하게 되어 그뒤 이를
契機로 하여 檢査으로 昇進되었다고 한다.

의 調査結果 그외의 數個處에서 더 發見된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 中部地方의 다른 곳에
서도 나올 可能性이 있다.

② 금강인가목屬(*Pectactina*)

이 屬은 조팝나무科(*Spiraeaceae*)에 屬하는 小灌木으로 금강인가목(*P. rupicola*) 1種이 있
다. 이植物은 1902年 T. Uchiyama氏(日本 東大 附屬植物園)와 1903年 U. Fauria氏(프랑스神)
父)에 依하여 金剛山에서 各各 採集한바 있었으나 조팝나무類로 誤鑑되어 있었고 鄭台鉉
博士와 T. Nakai博士가 金剛山植物調査時에 採集됨으로서 1917年에 新屬으로 固定되었다(8)
금강인가목은 岩壁上에 드리워 있는 植物로 조팝나무類의 어느種類를 連想케 하나 꽃이 5
個의 細受한 꽃잎을 가지고 있고 白色 또는 桃色으로 7월에 피며 圓准花字를 이루는
珍貴한 植物이다. 금강인가목이라는 이름은 인가목(*Spiraea ulmifolia*)에 類似하다는 데서 얻
은 것이고 *Pentactina*라는 屬名은 꽃잎 5個가 放射狀으로 나 있다는 데서 온 것으로
Penta(5)+*aktis*(放射線)의 合成語이고 *rupicola*라는 種名은 바위틈에 나는 性質에서 얻은
것이다.

③ 개느삼屬(*Echinosophora*)

이 屬은 콩科(*Fabaceae*)에 屬하는 灌木이며 地下莖으로 퍼져나가 모여나고 黃金色の 아
름다운 꽃이 9월에 피는 珍貴한 植物로서 개느삼(*E. koreensis*) 1種이 있다.

개느삼은 鄭台鉉博士와 T. Ishidoya博士에 依하여 咸南 北苜(公園)에서 最初로 採集되어
T. Nakai博士에 依하여 1919年 *Sophora korreensis*로 發表되었던 (9)것인데 그뒤 同氏의 研
究結果 1923年에 新屬으로 固定하였다(12) 그뒤에 平南 孟山과 江原 陽口에서 採集되었으나
희귀하다. 分布地理學적으로 보아 北部에 나는 것이 不連續的으로 陽口(中部)에 와서 나타
난 것은 興味있는 일이다. 개느삼이란 말은 고삼(너삼, *Sophora*)에 類似하다는 데서 얻어
진 것이며 學名도 같은 意味로 주어진 것이다.

④ 금강초롱꽃屬(*Hanabusaya*)

이 屬은 초롱꽃科(*Campanulaceae*)에 屬하는 多年草로서 금강초롱꽃(*H. asiatica*)과 걸산
초롱꽃(*H. latisepala*)의 2種이 있다.

금강초롱꽃은 1902年 T. Uchiyama氏가 金剛山에서 最初로 採集한 것으로 T. Nakai博士가

1909年 *Symphyandra asiatica*라는 이름으로發表되었다(1) 그 理由는 꽃이 淡紫色이고 聚藥雄蕊이며 꽃이 모여난다는 點에서였다. 그뒤에 研究結果 *Symphyandra*라는 根出莖이 없고 잎이 줄기의 上部에 모여서 나며 약편이 작고 서로 편이시 있고 꽃받침이 顯著히 隆起하며 그위에 花柱가 나는 點이 다르다는 理由로 1911年 新屬을 設立하였다 (2) 이 植物은 모시재(*Adenophora remotiflora*)에 가장 類似한데 聚藥雄蕊인 點과 腺體가 없는 點으로 區別할 수 있다. 金剛山에서는 楡岾寺方面에서 많다고 하며 雪岳山에서 小青峰과 大靑峰 사이에 많이난다. 그외에도 江原 雄岳山, 太白山, 京畿 明智山, 咸南 三防 等地에서 알려진 것으로 우리나라 中部 高山에 나는 珍貴한 植物이라고 볼 수 있다.

검산초롱꽃은 鄭台鉉博士와 T. Ishitoya博士가 咸南 劍山嶺에서 採集한 것으로 1921年 T. Nakai博士에 依하여 新種으로 發表된 것인데 약편의 巾이 넓은 點으로 금강초롱꽃과 區別되고(11) 그뒤 長津, 天佛山, 泗水山 狼林山 等地에서 採集된 바있다. 우리나라 이꽃들은 金剛山, 劍山嶺의 最初採集地를 記念한 것이고 초롱꽃(*Campanula punctata*)에 類似하다는 뜻에서 붙인 것이며 屬名 *Hanabusaya*는 Hanabusa (花房義賢—當時日本韓國大使)를 記念命名한 것이다.

⑤ 금매화아재비屬 (*Megaleranthis*)

이 屬은 미나리아재비科(*Ranunculaceae*)에 屬하며 금매화아재비(모데미풀, *M. saniculitolia*) 1種이 있는 多年生 草本植物이다.

금매화아재비는 1935年 J. Ohwi博士가 사초科 植物 1種의 生品을 얻기 爲하여 智異山 北面을 調査時에 主山脈 中央部에 있는 雲峰 모데미의 개울가 草原에서 偶然히 採集되었다 이는 금매화屬(*Trollius*)과 가장 類似한데 1基 1花로 꽃 바로 밑에 1枚의 總苞가 있고 다른 잎이 없는 것이 決定的인 相違點이다. 總苞葉으로 보면 너도바람꽃屬(*Eranthis*)에 類似 하나類緣關係는 比較的 멀어 꽃잎의 모양, 根莖의 狀態, 筋의 자루의 有無 및 配列狀態가 다르다. 即 屬의 特徵으로는 根莖이 細長하고 莖에는 根葉과 同形의 總苞가 1個 있으며 꽃은 極短柄에 1個 頂生하고 直徑은 2Cm 程度이고 약편은 5個가 花瓣狀으로 白色이며 꽃잎도 白色으로 小形이고 扁平하며 雄蕊는 多數이고 心皮도 多數이며 先端은 漸次가늘어져서 길이 3mm程度의 花柱로되고 작은 扁平하며 種子는 眞黑色으로 平滑한 點을 달고 있다. (12)

이 植物은 1944年 李永魯博士에 依하여 全北鎭村에서 採集된 일이 있고 1966年 李昌福博士가 雪岳山에서 採集한 바 있다. (13) 금매화아재비라는 말은 금매화 (*Trollius hondoensis*)에 類似하다는 데서 얻어진 것이며 모데미풀이란 말은 最初의 採集地의 이름을 딴 것이다. 屬名 *Megaleranthis*는 너도바람꽃(*Eranthis*)에 類似한 데서 온 것이다

⑥ *Diplolabellum*

이 屬은 난초科(*Orchidaceae*)에 屬하며 *D. coreanum* 1種이 있는 多年生 草本植物이다 이 植物은 1935年 F. Maekawa博士가 新屬으로 設定한 것이다. (14) 이 植物은 1907年 Faurie神父가 濟州島 漢拉山에서 最初로 採集한 것으로서 1908年 Finet氏에 依하여 *Oreorchis-coreana*로 發表되었던 것이다. 同氏는 唇辨에 헛바다 모양의 肉質 附屬物이 2個있는 點을 감자난초속(*Oreorchis*)에서 普通으로 볼 수있는 2從葉의 對身으로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前記 F. Maekawa 博士는 Faurie氏의 同一番號의 標本과 1908年 Taquet氏가 採集한 標本을 가지고 花粉塊等 對한 調査를 해본 結果 감자난초屬에는 明確한 花粉塊의 자루가 있으나 이에 없는 點을 들어서 新屬으로 固定하였던 것이다. 屬名 *Diplolabeillum*은 唇辨이 접이라는 意味에서 붙여진 것이다.

이 植物은 그뒤에 다시 採集된 記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적은 個體를 가지고 다문것
이어서 앞으로 再檢討의 餘地가 있다고 보여진다.

⑦ 부전바디속(*Homopteryx*)

이 屬은 미나리科(*Apiaceae*)에 屬하며 부전바디 (*H. Nakaiana*) 1種이 있는 草本植物인데
1937年 M. Kitagawa 博士가 新屬으로 固定했다. (17) 부전바디는 韓國北部 高山帶 (차인峰)
2,500m의 草原에 나는 植物인데 1931年 Y. kisirami氏가 最初로 採集한 것으로 출기와
잎은 바디나물屬(*Angelicae*)에 類似한데 꽃과 果實의 構造가 다르다 卽 屬의 特徵으로는
分果의 隆條가 모두 均等히 發達하고 廣濶한 나레를 形成하며 隆條中에 維繫束이 種子에
가깝게 다시말하면 分果의 中心에 가까이 存在하며 種子는 果皮와 緩接하고 있는 點들을
들고 있다.

前記 M. Kitagawa博士는 1968年 本屬植物을 再檢討結果 이는 *Angelica* 보다 *Coelopleurum*
에 더 가깝다고하여 統合을 主眼하였다(18) 그 理由로는 果實의 隆條가 얇고 넓은 翼狀
으로 均等히 發達한 것만으로는 屬의 設定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로서 스스로 자신의 무
덤을 짚으며 부전바디는 *Coelopleurum Nakaiianum* (Kitagawa) Kitagawa의 새로운 이름을
연게 되었다. 이 식물과 屬名은 最初의 採集地를 나타내고 屬名 *Homopteryx*는 Home(同
一)+Pteryx(翼)의 合成으로서 屬의 特徵을 말하고 있으며 *Coelopleurum*도 Coilos(腹)+Ple
uron(助派)의 合成語이고 種名은 韓國植物研究에 功勞가 많은 T. NaKai博士 記念하기 爲하
여 붙여진 것이다.

⑧ 매미꽃屬(*Coreanomecon*)

이 屬은 애기뿔풀科(*Chelidoniaceae*)에 屬하며 매미꽃(*C. hylomeconoides*) 1種이 있는 多
年生 草本植物이다. 매꽃은 피나물(*Hylomeconvernale*)과 같이 取扱하던 것인데 1935年 T.
NaKai博士가 獨立屬으로 設立한 것이다. (19) 本屬에 對하여 1953年 J. Ohwi博士는 *Hylom
econ, Coreanomecon* 兩屬을 모두 애기뿔풀屬(*Chelidonium*)에 統合整理하기도 한다(22)

매미꽃은 1915年 智異山 植物調査時에 最初로 鄭台鉉博士와 T. NaKai 博士에 依하여 採
集되었으나 피나물로 取扱되었고 1934年 全南 白雲山에서 採集된 것과 같이 檢討結果 新
品으로 判明되었고 그 뒤 無等山에서도 採集되었다. 매미꽃은 출기가 업고 잎은 모두 根
出葉이며 꽃줄기는 葉腋에서 나오고 꽃은 꽃줄기 끝에 繖形 또는 複繖形花序로서 나며 多
數의 苞가 있는 점이 피나물과 다르다. (14) 뿐만 아니라 잎의 齒鋸도 다르고 꽃을 綠
色을 띄는 黃金色으로서 7-8월에 피는 點도 다르다. 口名은 智異山地方의 方言이며 學名
은 피나물과 類似한 韓國特産이란 意味에서 붙여진 듯하다.

⑨ 평양치모(*Terauchia*)

이 屬은 지모科(*Haemodoraceae*)에 屬하며 평양치모(*T. anemarrhenaefolia*) 1種이 있는 多
年生 草本植物이다. 평양치모는 191年 H. Imai (當時 平壤高普敎師) 氏가 平壤에서 採集하여
T. NaKai博士에게 보내므로서 1913년에 新屬으로 設立되었던 것이다. (3) 평양치모는 中國과
滿洲에 나는 지모(*Anemarrhena asphodeloides*)에 類似한 잎을 가졌으나 꽃은 雌雄異株이고 雄
花는 병모양의 花被가 있으며 3個의 雄에는 雌生하고 葯과 花被와의 限界가 分明치 않
이며 花被는 決코 벌어지지 않고 球形을 이루며 花被片은 先端에서 서로 癒合하여 側面에
서 開孔하는 性質이 있는 植物이다.

M. Kitagawa博士는 이들 兩種을 比較研究結果서 營養器官이 흡사하고 평양치모의 꽃 內部
를 調査하니 花被內部에 黑黴菌 같은 것이 發着한 1種의 奇型品임을 指摘하고, 지모에 統

韓國特産物 植物에 對하여

습할 것을 1956년에 主張하였다. (25) *Terauchia*라는 屬名은 「當時 韓國總督으로 있던 Terauchi (寺內毅)를 記念하기 爲하여 붙인 것이고 種名은 지모에 類似한 잎을 가졌다는 데서 얻어진 것이며 國名은 産地를 表示한 것이다.

㉔ 참나래새屬(*Talis*)

이 屬은 포아골과(*Poaceae*)에 屬하며 참나래새(*P. coreana*) 1種이 있는 多年生 草本植物이다. 참나래새는 鄭台鉉博士와 T. Nakai博士가 光波植物을 調査時에 最初로 採集되어 M. Honda博士와 鑑定結果 개나래새(*Stipa japonica*)와 類似한데 줄기(幹)가 壯大하고 잎이 넓으며 穎花가 크고 까락(芒)이 긴점이 다르다고 하여 *Stipa coreana*라고 命名하여 1932년에 發表되었던 것인데 (26) 1943년 T. Ohwi博士의 研究結果 葉身의 巾이 넓고 髓穎은 단단하며 穎穎은 綠色으로 脈이 많고 1部가 網狀으로 되며 가장자리에 薄質部가 있고 까락이 굵으며 단단하고 子房上部에 짧은 털이 있으며 藥에 毛叢이 없는 점을 들어 新屬으로 固定하였던 것이다. (27) 참나래새는 그뒤에 忠南 鷄龍山에서 採集報告된 바 있다고 한다.

1953년 J. Ohwi博士는 다시 같은 巾이 넓고 扁平하며 髓穎은 革質이고 까락은 굵고 긴 머거리 膝曲치 아니하고 穎穎은 網狀의 小橫脈이 있으며 緣邊에 薄膜質의 部分이 없다는 점을 들어 中國産 *Orthoraphium*과 統合하고 *o. coreanum*의 新組合을 함으로서 自身의 무덤을 만들었다. (28), (29) 1965년 정인조博士는 Korean Grass에서 1932년의 *Stipa*屬으로 環元할 것을 主張했고 966년 李永魯博士도 이에 따르고 있다 (30)

㉕ 섬바디屬(*Dystaenia*)

이 屬은 M. Kitgawa 博士가 1937년 新屬으로 設定한 미나리科(*Apiaceae*)植物인데 T. Nakai 博士가 1953년에 特産屬으로 記錄하고 있으나 本屬에는 우리 나라 鬱陵島에 나는 섬바디(*D. takesimana*) 外에 日本에 *D. ibukiensis*가 있는 韓日共通으로 誤記이다.

3. 結 語

以上の 考察結果 韓國産 特産屬은 1952년에 11屬으로 報告되었으나 17년이 經過한 現今에 와서는 6屬으로 줄어든다. 이 原因은 過去에 新屬을 만들때 他人이 採集한 小數의 標本을 使用한 境遇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主로 外部形態만을 가지고 分類했고 細分하는 傾向이 있었는데 오늘에는 細胞遺傳學의 發達과 더불어 系統的 研究가 進行되어 種이 統合되는 傾向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再調査와 檢討를 한다면 더 줄어들 餘地가 있다.

北 部	中 部	南 部	濟 州	鬱 陵
<i>Echinosophora</i>	<i>Abeliophyllum</i>	<i>Megaleranthis</i>	<i>Diplolabellum</i>	(<i>Dystaenia</i>)
(<i>Homopteryx</i>)	<i>Pentactina</i>	(<i>Coreanomecon</i>)		
(<i>Terauchia</i>)	<i>Hanabusaya</i>			
	(<i>Patis</i>)			
1 (3)	3 (4)	1 (2)	1 (1)	(1)

註 : () 內의 數字는 T. Nbkai 博士에 依한것임

現在の 現況을 보면 다음 表와 같다.

위의 表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韓國中部에 特産屬이 가장 많다는 事實은 分布地

理學的으로 滿洲系分子(寒帶分子)와 日本系子(暖帶分子)의 分布圖에서 完全히 벗어난 韓半島의 環境의 特殊性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분 수 있다.

그리고 附言할 것은 固有種이나 特殊植物을 調査發表하는 것은 大端히 좋은 일이나 前記한 미선나무의 境遇와 같이 賢人端命의 薄運을 초래한다면 本末轉倒의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 點은 知性人의 良識에 呼訴하는 수밖에 없다.

參 考 文 處

1. T. Nakai ; *Plantae novae Asiaticae*, Bot. Mag. Tokyo Vol. 23 ; 185-192(1909).
2. 中井 猛之進 ; 朝鮮結梗植物 新原ニ就テ, Bot. Mag. Tokyo Vol. 25; (160-162) (1911).
3. " ; 朝鮮壺百合科植物 新屬 であらうちそう(新稱)ニ就テ, Bot. Mag. Tokyo Vol. 27; (441-443) (1919)
4. " ; 智異山植物報告書 P.1~98 (1915).
5. T. Nakai ; *Notulae ad plantas Japoniae et Coreae VIII*, Bot. Mag. Tokyo vol. 31; 3-30 (1917).
6. 中井猛之進 ; 金剛山植物報告書 P.1-204(1918).
7. T. Nakai ; *Genus Novum Oleacearum in Corea Media inventum*, Bot. Mag. Tokyo Vol. 33 ; 153-154(1919).
8. " ; *Notulae ad Plantas Japoniae et Corea XIX*, Bot. Mag. Tokyo vol. 33;1-11(1919).
9. " ; *Chosenia*, A New Genus of Saliceae, Bot. Mag. Tokyo Vol. 34;66-69 (1920)
10. 中井 猛之進 ; ちらはのき ニ就テ, Bot. Mag. Tokyo Vol .34; (249-251)(1920).
11. T. Nakai ; *Notulae ad Plantas Japoniae ed Coreae XXV*, Bot. Mag. Tokyo Vol. 35;139~153(1921)
12. " ; *Genera nova Rhamnacearum et Leguminosarum ex Asia orientali*, Bot. Mag. Tokyo Vol. 37 ; 29-36(1923)
13. 中井 猛之進 ; 光陵試驗林の -Ⅱ, P.17-85(1932)
14. T. Nakai ; Some Noticeable Japanese Plants(I), Jour. Jap. Bot. Vol.11;147-156(1935).
15. J. Ohwi ; *Megaleranthis*, Genus Novum *Ranunculacearum*, Act. phyto. Geobot. vol. 4;131(1935)
16. F. Maekawa ; *Studia Monocotyledonearum Japonicarum II*, Jour. Bot. vol. 11297-309 (1935)
17. 中川 政夫 ; 日滿産如科 植物小記(Ⅱ), Bot. Mag. Tokyo vol. 51805-812(1937)
18. 張 亨 斗 ; 朝鮮植物小報, 朝鮮郷土植物 Vol. 1 (1935)
19. J. Ohwi ; *Gramina Japonica IV*, Act Phyto. Geobot. Vol. 11;145-193(1945).
20. 박 만 주 ; 우리나라의 물명감 (1949).
21. T. Nakai ; A Synoptical Sketch of Korean Plants, Bull. Na. Sc. Mus. Tokyo No. 31, P. 1152(1952)
22. J. Ohwi ; New Names and New Combinations adopted in my "Flora of Japan," Bull. Nat. Sci. Mus. Tokyo No. 33, P. 66-90(1953)
23. 鄭 台 鉉 ; "미선나무"에 대하여, Kor. Jour. Bio. Vol.171-75(1956)
24. " ; 韓口植物圖鑑 上,下 (1956-7).
25. M. Kitagawa ; *Notulae Fractae of Floram Asiae Orientalis*, Jour. Jap. Bot. Vol. 31;302306(1956).

26. 大井 次三郎 ; 日本植物誌 (1961).
27. 鄭台鉉, 李基喆 ; 忠峯植物調査研究, 成大論文集 第6輯, P. 229-289(1961).
28. " " ; 雪岳植物調査研究, 成大論文集 第8輯, P. 2312g9(1963).
29. yong No Lee ; Manual of the Korean grasses (1966).
30. 文他財管理局 ; 雪岳山 一學術調査報告書-(1967).
31. 石 街 明 ; 濟州島隨筆 (1968).
32. 峯川 政文 ; クモイノダケの新屬ニツイテ, Jour. Jap. Bot. Vol, 43:427--428(1968).

<追記> 이 글은 筆者가 1967年 成均生物 Vol. 8. 9P. 8~12에 “韓國產物屬에 對한 小考”라는 題目으로 發表한 것인데 今般 韓國植物分類學會 第1回 學術講演會에 首題로써 講演하였고 그 講演集을 配게되므로 其間에 달라진 것을 補充하여 다시 整理한 것이다.